

“그러니까 삶의 방편 인간 된 도리로서 해야 하는 것은 어찌면 길 거리에 자리하고 방 안에 칩거하여 자신의 사연 같은 것을 읊는 게 세상 굴러가는 것을 보면 훨씬 유익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리하여 저는 말의 미추보다도 제대로 된 인생보다도 아니 저는 어찌면, 아니 일단 그러한 일들이 저를 마음을 정신을, 그리한데 이따위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지, 예를 들면 말문의 누수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저는-”

지난 몇 년간 나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보다도 우둔한 자의 지혜를 기록하려고, 우둔한 자들의 철학 개론서 혹은 고백록이나 백과와 같은 것을 만들고자 동네와 심상 공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취재의 대상들은 모두 자신이 얼마나 실패했다고 느끼는지 가망이 없다고 느끼는지 무엇에 신음하고자 하는지 등의 반-엄격한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기획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갈 데 없는 비상하거나 무가치한 언성들이 하나의 만듦새 있는 정신적 건물을 만드는 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따위 일을 모두 집어치우고 원고를 모두 불태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처 처리하지 못한 원고들이 스스로 불어나 자택의 틈 따위에 과다하게 숨어버렸더군요. 그래서 나는 내 컴퓨터에 쓴 문자적-비과학적-비사교적-비선형적-비경제적-비관적 곱팡이들을 사이버스페이스 야외에 내어놓아 어련히 죽게 하려 합니다. 선생님들도 원고와 말문의 위생을 조심하십시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즉흥극인 콤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 공연이 열렸던 일부 지역에선 인파가 모여 더 이상 고개를 들어도 무대를 감상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사람들은 공연장의 골목을 몇 번 틀어 주정뱅이나 신경쇠약의 무직자에게 가닿았다. 그들은 아마도 음유시인이나 전기수를 참칭하려 한 모양인데 그 재주가 그리 뛰어나지 않았는지 예술사에 그렇게 명백한 자취를 남기지는 못한 듯하다. 그들은 종종 사람들이 공연이 형편없다며 돈을 물어내라 하면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과하는 자 우리들 중에 가장 먼저 죽으리라’ (모리배가 따로 없는 일이다)

자전적 농담이라는 일종의 자기치료적 요법은 기원전에 발생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한 인류의 구습이다. 인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나라 곳곳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각자의 자아에 입적하고 있다 그런 구습이 내가 사는 마을에도 공연히 떠돈다 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고 있고 농담을 그만하고 싶다 병원에 가서도 치료는 뒷전이고 농담하는 것에만 이야기하고 있다 가령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내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이 수많은 환자의 삶 중에서 내 염증을 어떻게 찾으시겠다는 건지 가끔 의심이 들고 병원 오가는 길은 좁고 호두과자 노점이 아직 열었기를 바라고 손이 그만 텅으면 좋겠고 집안의 문제가 어느 날 깨끗하게 없어지고 나도 무엇들도 모두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까 과

연 올라 중얼거리며 아파트 계단을 올라서면서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정말로 바랬다 어떤 것들은 분명히 내 고통이 아니며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환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바보의 잘린 모가지와 떠드는 변사辯士나 희랍어에 대해 얘기하는 바르바로이의 일 같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무의미를 연습하여 세상의 우둔에 속달하고 있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인식이나 실재 같은 아무래도 좋은 일에 골몰하는 것만 같고 모든 것이 느낌의 문제 같고 다시 세상에 문제가 있고

3

나는 휘프노스의 시종인 듯하고 그래서 맨날 자려고만 하는 것 같다 어떤 개미들은 잠에 취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열 살 무렵 해가 질 적에 언덕을 넘어가는 요정 같은 걸 본 것도 같고 어른들은 그래서 내가 낮이 나가버렸다고 하고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의식 중에 맞이하는 모든 사건 일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자극으로 다가온다고 가정하자. 모든 투쟁 시도가 실패했으며 도피할 곳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자. 수면 세계에는 이제 화합이 없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은 지나간 고통의 세계를 복원하는 일이다. 고문으로 벗어나 다른 고문을 가지는 일이다. 파산했으나 더 이상 파산할 수 없는 인식의 일이다. 나비는 온갖 곳에 날아다닌다.

정신과 진료 대기 시간 동안 읽는 책의 내용이 다음 진료까지의 정신 양상을 예지하는 것이다. 일전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나서 약속 시간에 제때 나가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네 번을 파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고 나는 입원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병자는 청주에 있다

로마의 황제 데키우스는 어느 날 에페소스에 찾아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내서 우상 앞에 절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택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에페소스에 살던 그리스도인 중 막시미아누스, 말쿠스, 마르키아누스, 디오니시우스, 요한, 세라피온,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의 일곱 사람은 산속의 동굴로 들어가 은신하였고 황제는 동굴 입구에 커다란 돌을 가져다 두어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삼백육십 년 후 그들은 에페소스에 나타났으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십삼 세기와 십육 세기 독일에서는 동면자들condormants라는 이단이 나타났다. 그들의 이름은 자선을 핑계로 함께 잠을 자는 그들만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에 따르면 이불을 덮고 자려하는 인간 문화는 부활과 생과 사의 경계를 붕괴시켜 최종적으로는 종교의 자기소멸

적 목표에 다다른 것을 위해 발생했다고 한다. 아나스타시스는 그저 자고 일어나는 행위이다. 염소는 말한다. 내일 죽으면 좋다. 오늘 죽으면 더 좋다. 공자는 말한다. 오늘 죽고 내일 살겠다. 오늘 살고 내일은 죽겠다. 병자는 청주에 있다. 이불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발명되었다.

나는 매일 침소를 불태우고 싶으나 죽을 곳을 점치기 위해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4

네로 황제 통치기에 태어난 그리스 웅변가 아일리우스 아리스티데스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신성한 영토에서 잠자리에 든 다음 꿈속의 명령을 따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하려 했다.

그의 지혜를 따라 나는 백일몽의 지대를 확장하여 낮 동안에도 삶의 선명함을 뭉개려 하였다. 그러나 그 탓에 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공상세계의 악이 언어 사이에 준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익히 알듯 동네는 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천지망아가 나의 유일한 지혜다
꿈같은 것은 어서 전매국에 내다 팔아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수면 속에선 종종 내가 없다는 사실이 좋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성냥개비와 같다는 것이 좋았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머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니까 우리는 연소하는 냄새를 조금만 맡아도 황급히 수면을 부수려 하는 종족이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폐에 차오르는 숯덩이를 기다리

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정말로 깨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다시 나는 사람보다도 진자 운동하는 추나 균형 잃은 저울의 판관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체 더미 안에서 작렬하는 성화- 무엇이 되어야할지 모르겠어서 -유령선을 뜯어먹는 해파리 무리- 정말로 나는 무엇이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없고 기계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국민 또한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밤 열두 시에 거울을 보며 물어보고싶다 더 좋은 질문 같은 것 따위를 더 좋은 대답 같은 것 따위를

나는 친구들이 꿈에 나오는 것이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그들을 내가 왜 떠났는지 나는 왜 동네를 증오하지 못하는지 나는 왜 동네의 연인이 아닌지 나는 내가 나이 먹는 것을 관두었기 때문에 성자聖者가 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모두를 떠났기 때문에 천사가 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세계의 멀리서 서 있다 비손의 강 위에서 발만 담근 채로

오래오래 살고 있어

고통과 함께

내 영혼과 함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살고 있어

그리고 다시 청주에서

5

1513년 잘츠부르크 북쪽의 하운스베르크 숲에서 한 야만인이 발견되었다. 머리에는 닭의 벚과 염소 뿔이 솟아있었고, 목과 턱에는 갈기 같은 털이 뻗뻗했으며, 팔다리로 땅을 딛고 엎드려 있었다.

1548년 마르탱 게르Martin guerre는 아버지의 곡식을 훔친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집을 떠나 사라졌다. 이후 56년 여름 어떤 사내가 나타나 자신이 마르탱 게르라고 주장하였으며 아내와 아들과 삼 년을 함께 살았다. 후일 사칭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정에 진짜 마르탱 게르가 나타나 이 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1549년 브뤼셀에서 펠리페 2세가 카를 5세를 방문하였을 때 한 마차에서는 곰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악기는 파이프 대신 열여섯 마리의 고양이가 몸이 고정된 채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꼬리는 튀어나와 피아노의 현과 연결되어 있고, 키보드의 건반을 누를 때마다 꼬리를 힘껏 잡아당겨 야옹거리는 소리를 냈다.

1995년 청주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마을이 침수함으로 인해 해안가에 있던 보존용 구식 범선들이 주거지역 중심부까지 떠내려오게 되었다. 배들의 돛대 위에는 청자색의 불꽃이 여덟 시간 가량 목격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 불을 옮겨 가져가고자 하였다. 한편 2000년대 초반까지 일탈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성 에라스무스의 불꽃으로 만든 지포 라이터를 팔겠다는 사람을 마주쳤다는 괴담이 돌았다.

그리고 나는 이천년대가 오기 직전에 실은 양골모아가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세계에 종말을 내렸는데 모두 일부로 못 본 척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시민공원복판 목 주위에 흡엽吸葉이 무수히 달린 인면수심이 있다
행복의 정치가 유행한 곳에 리코갈라도 뻗쳐있었다
사실 나는 부들 군락 속에서 황제가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반흉반길의 이치를 외우려고 했는데 자주 잊어서 그만 관두었다
영성은 군류의 한 분류학적 집단이다

A-tishoo! A-tishoo!

We all fall down!

윤무는 원래 뽕그랑 소리를 내며 끝나는 건 줄 알았다

6

내 몸을 파하겠습니다
뇌척수액이 고여 풍기는 악취
체내 흑담즙의 번영

일가들의 이런저런 사정과 꺾꽂들
목 밑까지 차오른 익사 가능한 조영제

지각知覺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이다
새까만 속담의 사망선고

어머니가 나를 더 잘 다루어주었으면
아버지가 나를 더 잘 다루어주었으면
선생님이 나를 더 잘 다루어주었으면
친구들이 나를 더 잘 다루어주었으면
하다못해 동생이 나를 더 잘 다루어주었으면
(또 쓰레기같이 굴고 있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악 있으라

7

꿈속에 나비와 천사
등지고인사두번
방울새와 비눗방울

8

호언공豪言工은 줄창 청주에 산다
떠드는 소리는 나는데 실은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다
신발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래사장 제대로 밟은 적도
얼마 없어서
인파에 자신이 섞여들 수 있다고 믿는다 거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
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공도 꽤 쓸만하다고 말하면서 신발을 툭툭 던다 흙먼지 같은 것
은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약속은 무리한 과제에 불과하다
우리 서로 같은 인간이라고는 여기지 맙시다
Tres Tabernae

틴틴나불룸이 흔들리고 틴틴나불룸이 흔들리고
울음소리가 끝나기에는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고
야외의 소음들은 얼마나 좋은가 하고
시궁 하부의 하늘이 산란하는 색
이제 그의 빈소에 모두가 들려서 마음의 외곽을 걷혀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세상에는 인간의 번식이 일고 안식 없는
종소리가 끝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째서 전회하지 않습니까?
(다만 살신성인 살신성인 할 일이다)

9

묵언,묵언,묵언,묵언의 끝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인간만이 있다

〈참고〉

세이바인 베어링 구드, 1997, 중세의 전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자크 콜랭 드 플랑시, 2023, 지옥사전, 닷텍스트
앤 보이어, 2021, 언다잉, 플레이타임
위키백과- 고양이 오르간 항목

IMPRIMI POTES: Thulegenev